

전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전국 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 선정 광역자치단체서 2개 사업 유일 친환경농업·농촌지도사업 호평

전남도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의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시·도 우수사례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등 2건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매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균형발전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 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역자율계정 중 시·도 자율계정 7건, 시군구 자율계정 13건 등 총 20건이 선정됐다.

이 중 전남도는 시·도 자율계정 2건과 시군구 자율계정 1건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된 곳은 전남도가 유일하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도 부문의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전남도 친환경농업과),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전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이다. 시군구 부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함평군)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마련해 규모화하는 사업이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한민국 최대 공급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 농업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지원하

고 농촌진흥기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추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 청년농농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공유 공간을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함평군)은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 개발 추진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지역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농어촌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

여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끌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최다 선정은 도민과 전남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22개 시군이 함께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우수사례 성공모델 확산과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돼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nab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한 기자 cdstone@jinilbo.com

광주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전액 지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실외 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방지, 유실·유기견의 들개화 예방, 개물림 사고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위협과 농작물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실외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실외사육견 소유자다. 동물등록을 해야 중성화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동물은 등록과 사전검사를 진행한 후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치구별로 지정 동물병원을 안내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마리이며, 수술 전 검사 비용과 수술비용, 후처치 비용 등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부담 10%가 있었으나, 올해는 전액 지원기로 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의 개체수 관리를 통해 유기견·유실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여의도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 농민단체 회원들이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

광주 ‘각시골양봉’, 농림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광주시에 ‘시민체험 양봉 사업’을 통해 지원한 광산구 등임동 ‘각시골양봉’이 광주지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습교육장(WPL)’으로 지정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장실습교육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운영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장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강의계획 서류심사, 강의역량 평가, 교육장 현장평가, 최종 종합평가 등 총 4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통해 선도 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전수하고 영농 창업, 취업 역량 강화, 소

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에 지정받은 ‘각시골 양봉’ 농가는 약 20년 간 광산구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로, 2020년부터 4년간 광주에서 운영하는 ‘시민체험양봉’ 보조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시민들에게 양봉 기술을 전수했다.

양봉농가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 광주시 농·축산물 관련 농가 중에서는 최하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통해 양봉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현장에서 직접 전수할 수 있어 광주시 양봉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호남 최대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연다

12~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80부스 운영...체험행사 풍성

광주시에 호남지역 최대 수공예품박람회인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는 문화예술적 재능과 솜씨가 어우러진 우수 수공예품의 홍보마케팅과 판로 지원,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핸드메이드페어는 서울·경기·전북 등 전국에서 200여개

공예공방, 수공예 진흥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시 부스는 지난해보다 10개 부스가 늘어난 280개 부스를 운영한다. 도자, 목·칠, 섬유, 가죽, 금속, 종이공예 등 전통 공예는 물론 생활자기·천연비누 등 생활 상품류, 천연염색·가죽 등 패션 잡화류, 반지·목걸이 등 액세서리류, 초컬릿 아트까지 다양한 생활공예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예공방 전시판매관과 함께 △공예명품관 △우수수공예브랜드 홍보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예선 입상작 전시관

△한국전통문화전당관 등 특별관도 선보인다. 또 △지역 대학관 △공예 체험 및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백은아 콘텐츠산업과장은 “개성과 감성을 강조하는 핸드메이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통해 지역 수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과장은 이어 “공방에는 판로 확대 기회를, 시민들은 수공예품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 문화재 지정

전남도는 조선시대 무반가문의 고문서인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를 비롯한 고문서 71점과 전적 2책 등 총 73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어진 무반가의 고문서다. 조선시대 관료에게 관직이나 품계를 내릴 때 발급하는 문서(고신告身)가 주를 이룬다. 고흥 여산송씨의 입향과 정착, 임진왜란기 의병 관련 활동 등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시대 수군 훈련 절차를 기록한 병서인 ‘수조흘기(水操簿記)’와 송나라 충신 악비에 관한 책인 ‘정충록(精忠

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공신에게 발급한 녹권인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등이 전해지는데 이는 다른 서원이나 문중 자료가 학문이나 문학 분야가 주를 이루는 데 비해 군사 분야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또 ‘여수달마사예념미타도량참법’과 ‘장흥대원사 소장 불교전적’의 유형문화재 지정 및 명칭변경을 예고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최동한 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전남산림연구원으로 새출발

임업 연구 방향성 담아 명칭 변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산림연구원’으로 새출발한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기관 명칭을 변경, 다양한 미래 임업 수요에 걸맞은 산림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1922년 3월 25일 임업묘포장으로 시작해, 1937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됐으며 1993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치산사업 분야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2008년 원도수목원을 통폐합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로 명

칭이 변경됐다가 이번에 ‘산림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명칭은 그때마다 임업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시대 상황을 반영했고, 이번 명칭 변경 역시 미래 임업연구를 융복합시대에 걸맞게 산림복지 휴양 서비스 연구와 산림바이오 산업화 연구, 임업 소득화 등 산림 여건 다변화에 따른 임업연구의 방향성을 폭넓게 담고 있다.

현재 산림연구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돼 연간 30만 명이 찾는 숲명소다. 도민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숲교육 및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임업후계자 육성에 힘쓰고 있다.

연구원은 또 산림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단지를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과 목재 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목재누리센터 건립’ 등 산림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기후변화 등 급속하게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산림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정립함으로써 미래 임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